

## 자기제시동기에 따른 자기에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송 언 회      강 연 우      허 보 연      하 정 희†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상담센터

본 연구는 대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하여 내현적 자기에 및 외현적 자기가 진로미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기제시동기 수준에 따라서 외현적 자기에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변인 가운데 목표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소심/자신감 부족이 진로미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가운데 목표불안정 요인이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외현적 자기에의 하위변인인 자신감은 진로미결정 하위변인에 공통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발견하였다. 둘째, 외현적 자기에와 진로미결정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제시동기가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성격특성을 밝혀보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자기에의 긍정 부정 특성이 자기제시동기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발견함으로써 자기에와 관련된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는 데에 시사점이 있다.

주요어 : 자기에, 자기제시동기, 진로미결정

\*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 교신저자 : 하정희,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상담센터, (426-79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 3동  
Tel : 011-366-6777, E-mail : hajung366@hanmail.net

최근 몇 년간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이 가장 큰 걱정거리로 느끼고 있는 것은 진로선택과 관련된 것이며, 진로 결정을 미루거나 결정하지 못하는 비율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정승진, 최송미, 이상선, 2000; 탁진국, 이기학, 2001).

이와 관련하여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자아정체감,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불안 등의 심리적 변인들이 진로미결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왔다(정채기, 1991; Lucas, 1997; Taylor & Betz, 1983; Hackett & Betz, 1981; Fuqua, Newman, Seaworth, 1988; 이해성, 홍혜경, 1998). 하지만 진로미결정과 성격변인에 관한 연구는 그 범위가 다양하고, 동일한 연구주제에 관한 후속적인 반복연구가 많지 않아 진로 미결정자들의 성격특성을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 어렵고, 심리적 변인들의 상관관계 연구만으로는 다양한 미결정 상태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김봉환, 김계현, 1995). 한편 이지영(2004)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 진로미결정의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성격 5요인 및 자존감을 사회적 변인과 함께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통합적인 성격적 차원에서 진로미결정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대별되고 있으나, 진로상담이 내담자 각각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상담전략을 선택하여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Vondracek, Hostetler, Schulenberg, & Shimizu, 1990)는 점에서 볼 때, 성격 5요인은 특정 성격군이 아닌 일반적인 성격적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기에 여전히 구체적인 설명력을 지니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김은석,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의 성격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현대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진로결정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자기애(Narcissism)는 Freud에 의해 인간의 심리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Freud(1953)는 자기 사랑과 자기 과대화와 같은 태도, 자존감이 손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과대 망상이나 이상화와 같은 방어성, 자기충분성과 완벽함에 대한 추구, 특권의식, 타인을 자신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경향 등을 일컬어 자기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자기애는 Freud 이후로 정신분석 이론과 임상 실제에서 계속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현대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구성 개념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정신장애의 진단에서도 자기애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DSM-III(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에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등장하게 된다. DSM에서 말하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에 따르면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과장된 지각을 하며, 무한한 성공과 권력 혹은 이상적 사랑에 대한 공상에 자주 사로잡히며,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하다고 믿으며,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고, 특별한 대우를 바라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며, 강한 질투심을 가지고, 거만한 행동을 자주 보인다.

DSM의 진단기준은 비교적 자기애적 성격의 외현적인 특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자기애적 성격에는 자기 과대화나 웅대함과 같은 외현적인 모습 외에 두려움과 취약성,

우울이나 열등감 같은 특성도 감추어져 있다. 이러한 자기애의 이중성에 따라 자기애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나누어서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다(Akhtar & Thomson, 1982; Kernberg, 1975; Kohut, 1977; Wink, 1995). 이러한 견해는 기존의 자기애 척도들을 요인분석 하였을 때 특성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직교 요인으로 나뉜다는 Wink(1991)의 연구를 비롯해 다양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어 왔다. 이렇듯 자기애는 발현양상만 다를 뿐 기저의 핵심특성을 공유하는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두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애의 특성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현적 자기애 성향과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모두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내현적,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정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가 발현 양상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는 가정 하에 두 특성을 모두 알아보려고 한다.

국내에서는 강선희, 정남운(2002)이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이하 CNS로 약칭함)를 개발하기 전까지 대체로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기애적 성격검사지(Nar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askin & Hall, 1979, 이하 NPI로 약칭함)를 사용한 연구가 많았다.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대체로 NPI를 통해 나타나는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고, 우울이나 불안, 신경증적 경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남운, 2001a; Emmons, 1984; Raskin, Novacek, & Hogan, 1991a, 1991b; Watson & Biderman, 1993; Watson, Tayler, & Morris, 1987). 또한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개

념에 대한 다양성과 인지적 유연성을 나타내는 자기복합성과(김운주, 한성열, 1993) 창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askin, 1980). 또한 방어유형에 있어서도 적응적인 방어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연우, 2004).

이러한 결과들은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진로를 결정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짐작 가능하게 한다. 기존의 진로미결정 연구들을 보면 자존감이 낮고 우울이나 불안,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Fuqua, Newman, Seaworth, 1988; Taylor & Betz, 1983; 조애리, 1999). Freud(1931)의 말대로 자기애적 성격이 병리적일 정도로 심하지 않으면, 위협적인 요소에 독립적으로 대처하려는 자기몰두, 당당함과 리더의 역할을 맡을 경우 강한 추진력을 보이는 지도성, 우월감, 권위성 같은 긍정적인 측면들을 발휘하여 과업적인 면에서의 높은 성취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자신의 진로를 찾아나가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Kohut(1971)도 자기애의 건강한 측면을 강조하면서 자기애가 건강하게 발달되면 자기애 발달의 두 축인 자기의 과대화와 대상의 이상화는 각각 포부를 가질 수 있는 힘과 목표를 향해 이끄는 힘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힘은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 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만으로도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무조건 긍정적인 면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자기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보고는 피상적인 자기 확신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이다(Kernberg, 1980). 경험적 연구에서도 Raskin, Novacek과 Hogan(1991a, 1991b)은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높은 자존감이 방

어적인 자존감임을 밝혔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 자기의 내용이 공격성, 경쟁성 등 다소 병리적인 측면을 띠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아도 이들이 가지는 이러한 자기확신이 안정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Emmons, 1984; Raskin & Terry, 1988). 국내 연구에서도 한수정(1999)은 자기에 성향자들이 외현적으로는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저의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는 부정적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강연우(2004)는 외현적인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적응적 방어유형을 많이 사용하지만, 내현적 자기에 성향도 함께 높을 경우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만 높거나 둘 다 높지 않은 집단보다도 부적응적인 방어기제, 특히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측정할 때는 겉으로 들어나는 결과 외에 자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현적 자기에뿐만 아니라 강선희, 정남운(2002)이 CNS를 개발한 이후로 내현적 자기에와 관련한 연구들이 많아졌다. 이들 연구들을 통해 내현적 자기에의 특성을 보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고,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으며(정남운, 2001a), 대인불안을 많이 느끼고(이인숙, 2002), 불안 수준이 높으며,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강박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박동숙, 2004), 부적응적인 방어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연우, 2004).

지금까지 살펴 본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외현적 자기에에는 자존감이 높고, 우울 및 불안을 덜

느끼는 등 긍정적인 심리특성을 많이 보이는 반면, 내현적 자기에에는 자존감이 낮고, 우울 및 불안에 취약해서 부정적인 심리특성과 연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현적 자기에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심리특성은 안정적인 성향이 아니라 상황이나 동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심리적인 특성들은 진로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은석(2006)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으며, 특히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 요인 중 목표불안정 요인이 진로미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현적 자기에와는 달리 외현적 자기에에는 많은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진로미결정과도 크게 상관이 없게 보일 수도 있다. 기존의 진로미결정 연구들을 보면 자존감이 낮고 우울이나 불안,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는데(Fuqua, Newman, Seaworth, 1988; Taylor & Betz, 1983; 조애리, 1999), 외현적 자기에 성향은 이러한 심리적 특성들과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느끼는 긍정적인 자기 모습이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안정감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불안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진로를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즉, 내현적 자기에와는 달리 외현적 자기에의 표면적 특성은 긍정적인 특성들과 관련을 맺고 있지만, 외현적 자기에와 상호작용하여 이들의 긍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특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제 3의 변인’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

다. 이에 이러한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제시 동기’를 상정하였다.

자기제시 동기란 Leary와 Kowalski(1995a, 1995b)가 대인불안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자기제시 모형(self-presentation model)에 등장하는 개념이다. 자기제시 모형은 사회불안이 자기제시 동기(self-presentation motivation)와 자기제시 기대(self-presentation expectation), 이 두 요인의 함수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자기제시 동기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목적인 인상을 주어야겠다는 동기이며, 자기제시 기대는 자기가 그런 인상을 줄 것인가에 대한 주관적인 확률이다. 자기제시 모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목적인 인상을 주려고 하지만, 그 일에 성공하리라고 확신하지 못할 때 사회불안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Leary & Kowalski, 1995a; Schlenker & Leary, 1982; 김남재, 2004에서 재인용).

Leary와 Kowalski는 자기제시 동기를 명확히 조작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자기제시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열거하였다. 이들은 자기제시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인상 감찰(impression monitoring), 원하는 산출물(outcome)의 중요성과 가치, 자기상(self-image) 및 인정 추구(approval seeking)를 들었다. 인상 감찰은 대인관계적 상황에서 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하는 정도를 말하며 인상감찰을 많이 할수록 자기제시 동기가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자기제시 동기는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바라는 산출물의 중요성과 가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평가나 반응이 중요하거나 가치가 높을수록 자기제시 동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자기제시 동기는 특히 자기정체성에 중요하거

나 핵심적인 측면을 제시해야 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자기개념이나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자기제시의 주된 동기는 자존심을 유지하고 고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chlenker & Weigold, 1992). 마지막으로 인정 욕구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이 높은 사람은 자기제시 동기가 더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기존에 자기제시 동기는 주로 사회불안과 관련하여 연구가 되어온 개념이지만 진로와도 많은 연관성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개인은 진로를 선택할 때 타인의 기준에 부합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직업을 선택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애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에 대한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타인의 평가를 의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애적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자기제시 동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Kernberg(1975)는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자존감이 높으면서도 타인의 주의를 존경을 바라는 자기애적 모순(narcissistic paradox)을 보이며 이는 노출적 과시를 통해 남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경향에서 드러난다고 하였다. Kernberg에 의하면 이들은 피상적으로는 적응적인 행동을 보일지 모르지만 내적인 세계는 병리적이다. 이것은 자기애를 발현 양상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나누었을 때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보이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일 뿐 부적응적인 성향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긍정적인 특성은 남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것일 수 있고, 이러한 동기가 사라졌을 때는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인에게 좋은 평가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는 자기제시 동기를 외현적 자기애와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이로서 자기제시 동기가 높고 낮음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내현적 자기애 및 외현적 자기애가 진로미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기제시동기 수준에 따라서 외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에 대한 병리적인 견해보다는, 오히려 자기애가 정상과 비정상의 연속선상에 위치한 것이고 정상인에게도 그 성향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성격특성으로 보고자 한다. Raskin(1980), Raskin과 Hall(1981), Emmons(1984)도 병리적인 자기애는 자기애적 행동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고 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때에는 이러한 행동이 성격특질로서의 자기애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내현적 자기애는 진로미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외현적 자기애는 진로미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 자기제시동기 수준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간의 관계가 달라질 것인가?

## 방 법

### 조사대상

본 조사의 대상은 A대학의 남녀 대학생 3, 4학년 총 251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된 17명을 제외하고 총 23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은 언론정보대, 경상대, 국제대, 이공대, 예체능대의 단과대 별로 무선적으로 수업을 선별하여 그 수업을 듣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집단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234명으로 성별로는 남학생 151명(64.5%), 여학생 81명(34.6%), 무응답 2명(0.9%), 학년별로는 3학년 96명(41.0%), 4학년 138명(59.0%)이었다.

### 측정도구

#### 자기애적 성격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이 척도는 Raskin과 Hall(1979, 1981)이 DSM-III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진단 준거에 바탕을 두고 개발한 54문항의 외현적 자기애 측정도구로, Raskin과 Terry(1988)가 주성분분석을 거쳐 54문항을 40문항으로 단축하여 발표한 것을 한수정(1999)이 번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남운(2001b)이 공통요인분석을 통하여 6개 문항을 제외한 32문항의 NPI를 사용하였다. 정남운(2001b)의 32문항 NPI는 ‘리더십/자신감’, ‘권력욕구/특권의식’, ‘과시/칭찬욕구’, ‘우

월의식'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리더십/자신감'은 리더십, 주도성, 자신감, 주장성을 나타내는 문항들이 포함되며, '권력욕구/특권의식'은 권력추구나 성공에 대한 강한 욕구와 관련되는 특성을 설명한다. '과시/칭찬욕구'는 자신의 모습이나 능력을 과시하여 사람들로부터 주목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월의식'은 자신이 특별하고 뛰어나다는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 척도는 자기애 성향을 나타내는 문장과 그와 반대되는 문장 2개를 제시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며, 자기애적 성향의 문장을 선택하였을 때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4이며 하위요인은 순서대로 .70, .70, .65, .69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 scale; CNS)**

이 척도는 강선희, 정남운(2002)이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목표설정의 어려움과 불확실성, 직업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 및 불만족을 나타내는 ‘목표불안정’,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으며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매사에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적인 대인관계와 특권의식, 자기중심성을 반영하는 ‘착취/자기중심성’, 자신을 불행하고 무가치하게 느끼고 평가에 예민한 ‘과민/취약성’, 마지막으로 소심하고 내향적이며 자신감이 부족한 ‘소심/자신감 부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총 4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강선희,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  $\alpha$ )는 .90으로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는 순서대로 .89, .81, .74, .80, .77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  $\alpha$ )는 .93으로 각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는 순서대로 .91, .76, .78, .84, .81로 나타났다.

**자기제시동기(SPMS)**

본 척도는 김남재(1998)가 개발한 자기제시동기척도(SPM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향적 자기제시동기를 타당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한 후 이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제시동기 즉, 자기 자신이 목적인 인상을 제시하려는 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alpha$ )는 .94로 나타났다.

**직업결정척도(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

본 척도는 탁진국과 이기학(2001)이 국내 대학생 표집을 이용해 국내 문화에 적합하게 개발하였다. 하위척도는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 필요성 인식부족, 외적 장애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문항으로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전체 척도의 합과 하위척도 각각의 합 모두를 분석에서 사용하였는데, 전체 점수의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결정에 있어서 미결정 정도가 큰 것이며, 하위척도 각각의 합이 클수록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 필요성 인식부족, 외적 장애 등을 크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탁진국, 이기학(2001)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7이며,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순서대로 .83, .88, .72, .62, .60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9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는 순서대로 .84, .89, .81, .84, .75 로 나타났다.

### 불안(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본 척도는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 (1970)이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척도(STAI)를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한국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시킨 것이며, 상태 불안과 특성불안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이 2개의 하위요인 중 특성불안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 불안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특성불안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92였다.

###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Version 12.0)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1과 2를 검증하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문제 3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자기제시동기의 조절변인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조절변인 분석에서는 회귀분석을 적용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홍세희, 2007).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와 자기제시동기를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이 변인들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주효과(외현적 자기애와 자기제시동기)를 통제한 후에도 종속변인(진로미결정)에 대한 상호작용

변수(외현적 자기애  $\times$  자기제시동기)의 효과가 유의할 때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결 과

### 전체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자기제시동기, 진로미결정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계수를 구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들 대부분 자기제시동기, 진로결정의 하위 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외현적 자기애는 진로미결정 하위변인들과 전반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자기제시동기와는 부분적으로는 정적상관과 부적상관을 함께 나타냈다. 즉,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은 자기제시동기, 진로미결정 하위변인인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우월은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과시는 자기제시동기,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반면, 특권의식은 자기제시동기와 우유부단에서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고, 필요성 인식 부족과 외적장애와는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 의 관계

앞서 표 1을 통해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

표 1.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자기제시동기, 진로 미결정과의 상관계수(r) (n=234)

	자기 제시동기	진로미결정						
		진로미결정	직업정보	자기명확성	우유부단	필요성인식	외적장애	
내 현 적 자 기 애	목표불안정	.15*	.73***	.51***	.68***	.62***	.32***	.33***
	인정욕구 /거대자기 환상	.64***	.24***	.21**	.21**	.21**	-.00	.16*
	착취 /자기중심성	.22**	.36***	.23**	.30***	.29***	.21**	.21**
	과민/취약성	.40***	.53***	.27***	.38***	.61***	.23**	.39***
	소심 /자신감 부족	.26***	.53***	.26***	.37***	.72***	.26***	.27***
	외 현 적 자 기 애	자신감	-.15*	-.37***	-.21**	-.33***	-.52***	-.03
	특권의식	.20**	-.10	-.11	-.06	-.19**	.01	.04
	과시	.36***	-.11	-.07	-.15*	-.16*	-.01	.01
	우월	-.03	-.23***	-.18**	-.24***	-.30***	.01	-.05

\* $p < .05$ , \*\* $p < .01$ , \*\*\* $p < .001$

결정과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외현적 자기애 또한 부분적으로 진로미결정과 관련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진로미결정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enter방식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선,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간 상호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미결정 하위요인인 직업정보부족은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 요인 중에서도 목표 불안정( $t=6.68, p < .001$ ),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t=2.32, p < .05$ )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명확성부족은 목표 불안

정( $t=10.33, p < .001$ )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되었다. 우유부단은 목표불안정( $t=5.79, p < .001$ )과 소심/자신감 부족( $t=6.76, p < .001$ )에 의해 유의한 예언을 보여주었다. 필요성인식 부족은 목표불안정( $t=2.54, p < .01$ )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적 장애는 목표불안정( $t=2.00, p < .05$ )과 과민/취약성( $t=2.96, p < .01$ ) 정도가 외적 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볼 때, 특히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목표 불안정은 모든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심/자신감 부족은 우유부단에, 과민/취약성은 외적장애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3에서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간 상호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진로미결정

표 2. 진로미결정 하위변인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R <sup>2</sup>
		B	Std.Error	Beta		
직업정보부족	목표불안정	.34	.05	.51	6.68***	.26***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17	.07	.16	2.32*	
	착취/자기중심성	.00	.06	.00	.05	
	과민/취약성	-.07	.07	-.11	-1.04	
	소심/자신감 부족	.02	.08	.02	.22	
자기명확성 부족	목표불안정	.37	.04	.67	10.33***	.46***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08	.05	.09	1.50	
	착취/자기중심성	.04	.04	.05	.79	
	과민/취약성	-.05	.05	-.09	-1.00	
	소심/자신감 부족	.02	.06	.03	.36	
우유부단	목표불안정	.15	.03	.33	5.79***	.60***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01	.04	.01	.18	
	착취/자기중심성	-.02	.03	-.03	-.61	
	과민/취약성	.05	.04	.10	1.33	
	소심/자신감 부족	.28	.04	.47	6.76***	
필요성 인식부족	목표불안정	.08	.03	.21	2.54**	.13***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07	.05	-.12	-1.51	
	착취/자기중심성	.07	.04	.14	1.79	
	과민/취약성	-.00	.05	-.01	-.04	
	소심/자신감 부족	.07	.05	.13	1.28	
외적 장애	목표불안정	.07	.03	.16	2.00*	.17***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01	.05	-.01	-.16	
	착취/자기중심성	.00	.04	.01	.08	
	과민/취약성	.13	.05	.33	2.96**	
	소심/자신감 부족	-.02	.05	-.05	-.49	

\* $p < .05$ , \*\* $p < .01$ , \*\*\* $p < .001$

표 3. 진로미결정 하위변인에 대한 외현적 자기애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R <sup>2</sup>
		B	Std.Error	Beta		
직업정보부족	자신감	-.40	.20	-.16	-2.02*	.06**
	특권의식	-.03	.24	-.01	-.13	
	과시	.08	.37	.02	.22	
	우월	-.78	.51	-.12	-1.54	
자기명확성 부족	자신감	-.68	.16	-.33	-4.35***	.14***
	특권의식	.38	.20	.15	1.96	
	과시	-.34	.30	-.09	-1.15	
	우월	-.65	.40	-.12	-1.61	
우유부단	자신감	-.91	.13	-.51	-7.19***	.60***
	특권의식	.11	.16	.05	.73	
	과시	.03	.24	.01	.12	
	우월	-.38	.33	-.08	-1.16	

\* $p < .05$ , \*\* $p < .01$ , \*\*\* $p < .001$

의 하위요인에 대한 외현적 자기애의 상대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진로미결정 가운데 우유부단에 대한 외현적 자기애의 설명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직업정보부족( $t = -2.02, p < .05$ ), 자기명확성부족( $t = -4.35, p < .001$ ), 우유부단( $t = -7.19, p < .001$ ) 모두 자신감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되었다. 이는 자신감이 증가할수록 직업정보가 부족하지 않다고 지각하며, 자기명확성이 증가하고 우유부단함도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기제시동기 수준에 따른 외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

과의 관계를 자기제시동기가 증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외현적 자기애와 자기제시동기를 1단계에 투입하고, 2 단계에서는 이 변인들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주효과를 통제된 후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를 통해 볼 때, 진로미결정에 대한 자기제시동기와 외현적 자기애의 상호작용 효과는 주효과를 통제된 후에도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beta = -.12, p < .05$ ), 자기제시동기 수준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외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제시동기가 조절효과를 나타냄을 보여주는 것이

표 4. 진로미결정에 대한 외현적 자기애, 자기제시동기, 외현적 자기애×자기제시동기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1단계( $\beta$ )	2단계( $\beta$ )
진로미결정	외현적 자기애	-.29***	-.30***
	자기제시동기	.16**	.16**
	외현적 자기애× 자기제시동기		-.12*
	$\Delta R^2$		.015
	$R^2$	.102	.117
	F	13.07***	10.13***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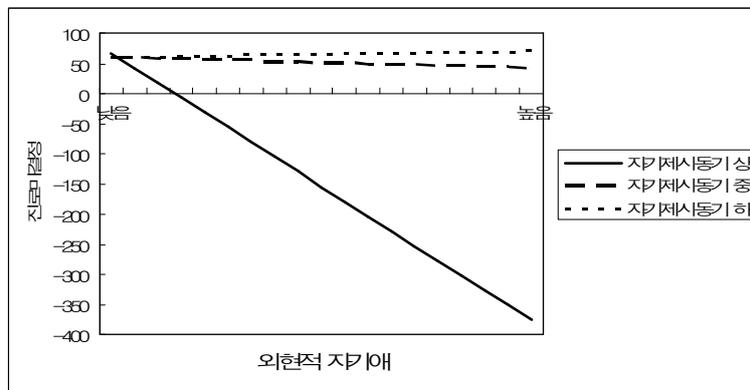


그림 1. 자기제시동기 수준에 따른 외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1를 통하여 살펴보면, 자기제시동기가 높은 경우( $b = -24.57$ ,  $t(234) = -2.05$ ,  $p < .05$ )와 중간인 경우( $b = -.96$ ,  $t(234) = -4.86$ ,  $p < .01$ )에 외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는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자기제시동기가 낮은 경우에 외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b = .57$ ,  $t(234) = .05$ ,  $n.s.$ ). 그러므로, 자기제시동기가 높은 경우와 중간인 경우에 외현적 자기애는 진로미결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자기제시동기가 낮은 경우에 외

현적 자기애는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내현적 자기애 및 외현적 자기애가 진로미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기제시동기 수준에 따라서 외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인 정보부족, 명확성부족, 우유부단, 필요성부족, 외적장애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보부족에는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변인인 목표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확성부족에는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변인인 목표불안정, 우유부단에는 하위변인인 목표불안정 및 소심/자신감부족, 필요성부족에는 하위변인인 목표불안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변인인 목표불안정이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 밖에 진로미결정 하위변인별로 인정욕구나 소심/자신감 부족 또한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목표불안정이 진로미결정에 뚜렷한 영향력을 보인다는 결과는 김은석(2006)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내재화된 목표 부재나 직업적·사회적 정체성의 불만족과 불확실성이라는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은 자신의 정체감에 기반을 둔 뚜렷한 목표를 확립하기 어려워하고 정보수집의 필요성을 못 느끼며 계속적으로 우유부단한 채 진로결정을 미루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타인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은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 또한 진로결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진로미결정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렇듯 자기애와 진로와 관련지어 본 연구는 주로 내현적 자기애를 다룬 것이 대부분인

데(김은석, 2006; 이춘희, 2007), 이는 열등감과 취약한 자기개념, 타인에 대한 시기와 이상화라는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이 자기효능감이나 자존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진로미결정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 뿐만 아니라 외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련성 또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인 정보부족과 명확성부족, 우유부단에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변인인 자신감만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현적 자기애에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인 측면이 혼합되어 있다고 볼 때(정남운, 2001b), 외현적 자기애의 다양한 부적응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신감 특성은 진로 결정에 있어서 정보부족이나 명확성부족, 우유부단함을 덜 느끼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외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제시동기가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자기제시동기가 낮은 경우에는 외현적 자기애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 비해서, 자기제시동기가 중간이거나 큰 경우에는 외현적 자기애가 클수록 진로미결정이 적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제시동기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목적한 인상을 주어야겠다는 동기로서, 타인에게 목적한 인상을 주려고 하지만 그 일에 성공하리라고 확신하지 못할 경우에 사회불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Leary & Kowalski, 1995a; Schlenker & Leary, 1982). 개인이 자기제시동기가 커지는 경우는 대개 자기정체성(self-identity)에 중요하거나 핵심적인 측면을 제

시해야 하는 사회적 상황이며(Leary & Kowalski, 1995a), 따라서 자기제시동기는 개인의 성향과 상황적 특성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고(Grogovich, Kemple, & Leary, 1986) 이에 따른 심리적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하다고 믿으며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고, 특별한 대우를 바라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특성을 보이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큰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이 목적인 인상을 주어야겠다는 동기가 큰 경우에 더욱 더 자기중심적으로 현실을 지각하면서 자기존중감을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기제시동기의 주된 동기 역시 자존감의 유지 및 고양이라고 할 때 (Schlenker & Weigold, 1992) 이는 외현적 자기에의 주된 자기개념인 고양된 자기존중, 거만한 웅대성, 특권의식 등과 부합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Akhat & Thomson, 1982). 따라서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큰 사람들이 자기제시동기가 클 때에 이들의 고양된 자기개념적 특성이나 사회적 성공 등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자신감과 과시욕구, 우월의식이 강해지면서 진로미결정 수준 또한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상담에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에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대인관계나 그와 관련된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특성들을 살펴보는 것이 주를 이루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진로미결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담자 각각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상담전략을 선택하여 앞으로 경험하게 될 어려움을 미리 예측해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Vondracek, Hostetler, Schulenberg, & Shimizu, 1990) 본 연구는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성격특성을 밝혀보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즉, 현대 사회의 흐름 안에서 점차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 성격 특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봄에 따라,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그들이 장차 경험하게 될 어려움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내현적 자기에의 목표불안정성이 진로미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함께 이해하고 이들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목표설정과 이를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방법 모색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상담자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내담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통한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작은 일에서부터 자신의 의지로 결정내리고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점차로 중요한 일에서도 내담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상담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현적 자기에가 큰 내담자의 경우에는 그들의 다양한 장점과 단점을 함께 이해함은 물론,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만한 웅대성과도 관련된 자신감 특성이 때때로 부적응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들을 우유부단하지 않게 하고 자신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도록 함으로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특성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렇듯 외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이 겉으로 는 더 안정되고 자신감이 높아 보일 수 있음 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Emmons, 1984; Raskin, Novack, & Hogan, 1991; Watson & Biderman, 1993). 그러나 Kohut(1971, 1977)이 제시한 바와 같이, 외현적 자기애 또한 손상되고 약해진 자기표상을 복구하려는 방어적인 시도로서 얻어진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현적 자기애의 표면적인 모습만으로 단순히 이를 긍정적, 부정적이라고 단정 짓긴 어려울 것이다. 특히 많은 한국의 대학생들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진로탐색보다는 외부적으로 주어진 상황 조건에 의해서 성급하게 진로를 결정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고홍월, 김계현, 2008) 이러한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 역시 그들의 자신만만한 성격특성으로 인해 합리적인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로를 성급히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상담과정에서 이러한 외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함은 물론,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이들이 진로를 결정하게 된 주된 동기나 감정, 진로결정 후의 태도 등을 점검해나감으로써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진로선택 과정과 결과 등의 다양한 특성들을 함께 점검해나가는 것이 상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단순히 외현적 자기애가 높은 경우에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제시동기가 적은 경우에는 외현적 자기애가 높더라도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을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자기애와 관련된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즉, 지금까지 자기애와 관련되어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서

자기애의 긍정, 부정 특성을 파악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외현적 자기애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자신이 목적인 인상을 주어야겠다는 동기수준을 함께 고려함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상담 장면에서 적용해 볼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매사에 자신만만하여 불안해하지 않고 이로 인한 결과로서 진로결정 또한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었다는 결과중심적인 설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들은 자신이 보이고 싶어 하는 웅대하고 자신만만하며 야망 있어 보이는 자기 이미지를 타인에게 나타내고 싶은 동기가 더욱 더 큰 경우에 진로결정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외현적 자기애 및 자기제시동기와 관련지어서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대체로 높은 자기제시동기는 타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주고자 하는 동기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불확실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높은 사회적 불안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김남재(2004)는 높은 자기제시동기가 주로 대인간 평가조건에서 높은 불안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타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자기제시 동기가 높다 하더라도 동시에 매우 높은 자기존중감으로 남들의 평가를 오히려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이며 특권의식을 가진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로 인한 위축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취약하지 않다는 착각으로 인해 다양한 긍정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외현적 자기애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타인

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주고자 하는 동기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이들의 자신감, 특권의식, 과시, 우월욕구 등 타인에게 나타내고 싶은 특성들과 이들 낮은 동기가 상충되면서 진로미결정을 비롯한 다양한 부적응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담 장면을 통해 상담자와 내담자는 이러한 외현적 자기애의 내적, 외적 특성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자기제시동기 수준을 또한 함께 탐색함으로써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진로미결정을 하지 않고 다른 긍정적 특성 또한 보인다고 할 때, 이러한 결과 자체로 이를 전적으로 긍정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진로결정이란 결정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한 상태 역시 문제가 될 경우도 많으며, 이기학(2003)과 장선철(2003)은 한국 대학생들의 60- 85% 정도가 진로를 결정했음에도 자신의 결정에 불편하다고 응답했음을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결정에 어떠한 요인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로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지도가 요청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검사의 한계로 인하여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의 자기표현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경우에는 자신이 취약하지 않고 매우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든 문항에 더 긍정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추후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대학교 3학년 이후가 앞으로의 직업과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피험자를 3, 4학년으로 제한하였고, 대상자의 전공은 언론정보계, 인문계, 상경계, 이공계, 예체능계 등을 골고루 포함하였다. 그러나 취업에 민감한 이 시기의 학생들 특성이 본 연구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이 연구의 중요한 한계점으로 보인다. 추후연구에서는 3, 4학년 뿐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각 학년에 따른 진로미결정과의 차이 및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원인을 함께 고려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살펴본 바 있으나, 진로미결정은 물론 진로와 관련되어 개인적 특성인 자기애와의 연관성을 본 연구는 많지 않다. 앞서서 설명했듯이 자기애는 직,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변인이라고 할 때, 이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강연우 (2004). 자기애와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은영 (2002). 자기주도적 자기애 및 타인의존적 자기애와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고홍월, 김계현 (2008). 한국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성숙수준과 의사결정 상태와의 관계. *상담학연구*, 9(1), 147-164.
- 김남재 (1998). 대인불안에 대한 자기제시 동기와 자기제시 기대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남재 (2004). 자기제시 동기와 대인간 평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677-695.
- 김봉환, 김계현 (1995). 진로 미결정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1), 20-43.
- 김윤주, 한성열 (1993). 자기애적 성격과 자기복합성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1), 28-36.
- 김은석 (2006).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지지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택, 신동균 (1978). STA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1(11), 69-75.
- 박동숙 (2004). 내현적 자기애와 불안, 완벽주의, 강박증상간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기학 (2003). 대학생의 진로선택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미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13-21.
- 이인숙 (2002).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과 대인불안 및 방어성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영 (2004). 진로미결정의 선행 변인과 결과 변인으로서의 직업탐색행동 및 구직성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춘희 (2007).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혜성, 홍혜경 (1998). 진로결정상태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143-166.
- 장선철 (2003). 대학생의 진로결정유형과 개인·인지 변인의 관계 분석.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남운 (2001a). 과민성 자기애 척도(HSNS)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정남운 (2001b).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겐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정승진, 최송미, 이상선 (2000). 대학생의 전공 및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 *연세상담연구*, 16, 37-53.
- 정채기 (1991). 자아상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애리 (1999).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탐색행동과 성격5요인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세희 (2007). 구조 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비간행본).
- 탁진국, 이기학 (2001). 직업결정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경영연구*, 1(1), 167-180.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Washington DC: Author.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 Freud, S. (1931). *Libidinal types*. London: Hogarth Press.
- Freud, S. (1953).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14).
- Fuqua, D. R., Newman, J. L., & Seaworth, T. B. (1988). Relation of state and trait anxiety to different compon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2), 154-158.
- Gregorich, S. E., & Kemple, K., & Leary, M. R. (1986).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reactions to information regarding others' performances. *Representative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16, 15-27.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Kernberg, O. F. (1980). *Internal world and external reality*. New York: Aronson.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ary, M. R., & Kowalski, R. M. (1995a). *Social anxiety*. New York: Guilford Press.
- Leary, M. R., & Kowalski, R. M. (1995b). The self-presentation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der(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Lucas, M. (1997). Identity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2), 123-132.
- Marks, I. & Gelder, M. (1966). Different ages of onset in varieties of phobi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3, 218-221.
- Raskin, R. N. (1980). Narcissism and creativity: Are they related? *Psychological Reports*, 46, 55-60.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R., & Hall, C. S.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159-162.
- Raskin, R., Novacek, J., & Hogan, R. (1991a). Narcissism, self-esteem, and defensive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59, 20-38.
- Raskin, R., Novacek, J., & Hogan, R. (1991b). Narcissistic self-esteem man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911-918.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

- component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 Rhodewalt, F., & Morf, C. C. (1998). On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72-685.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 641-668.
- Schlenker, B. R., & Weigold, M. F. (1992). Interpersonal processes involving impression regulation and manage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3, 133-168.
- Schurman, C. L. (2000). *Social phobia and covert narciss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right Institute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 Alto, CA: Consulting Psychology Press.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Vondracek, F. W., Hostetler M., Schulenberg J. E., & Shimizu K. (1990). Dimension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98-106.
- Watson, P. J., & Biderman, M. D. (1993).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factors, splitting,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1, 41-57.
- Watson, P. J., Taylor, D., & Morris, R. J. (1987). Narcissism, sex roles, and self-functioning. *Sex Roles*, 16, 335-350.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Wink, P. (1995). Narcissism. In C. G. Costello(E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ity disordered*(pp.146-172). New York: Wiley.

원 고 접 수 일 : 2008. 6. 13  
수정원고접수일 : 2008. 7. 15  
게 재 결 정 일 : 2008. 8. 8

##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Career Indecision by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Un-Hee Song      Yon-Woo Kang      Bo-Youn Heo      Jung-Hee Ha**

Hanyang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This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how covert and overt narcissism affects career indecision. It also sought to examine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t narcissism and career indecision differs depending on levels of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among the 234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Goal Instability, Need for Attention/Self-Aggrandizing Fantasy, Timidity/Confidence Deficiency, and subscales of covert narcissism correlated to career indecision positively. This was especially so in terms of Goal Instability, a subscale of covert narcissism which was a common factor affecting subscales of career indecision. Moreover, Self-Confidence, a subscale of overt narcissism, was a common factor negatively affecting subscales of career indecision. Second,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t narcissism and career indecision.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that it illuminates many of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which influence career indecision.

*Key words : narcissism,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career indecision*